

**담당 : 홍보팀 김균섭 사원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메디힐 · 한국일보 챔피언십’ 1R 오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김민솔, 한진선, 이채은2, 김아림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메디힐 · 한국일보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14일(목) ~ 8월 17일(일) |
| 3 | 장 소 | 몽베르컨트리클럽 [가을(OUT) / 겨울(IN)] |
| 4 | 주 최 | 메디힐, 한국일보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10야드-예선, 6,544야드-본선 |
| 8 | 참가인원 | 123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박지영, 이예원, 박현경, 방신실, 홍정민, 노승희, 이동은, 고지우, 이가영  김민선7, 김민주, 정윤지, 박혜준, 배소현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  이다연, 김아림, 안나린, 최혜용, 성아진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30분  [2라운드] 11시 ~ 17시30분  [3라운드] 09시30분 ~ 16시  [최종라운드] 09시30분 ~ 16시 |

**◈ 김민솔, 1라운드 중간합계 7언더파 65타 \*단독 선두(16시50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[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725**](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725)

**[스크립트 제공 = 대회조직위원회]**

**Q. 1라운드 소감은?**

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 기쁘다.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연습라운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, 샷감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1번 홀부터 버디를 잡으며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.

**Q. 전반에 티샷이 흔들렸는데 아이언 샷은 어땠는가?**

티샷이 불안정했다고 생각하지만, 아이언 샷은 비교적 잘 나왔다. 초반에는 샷이 좋지 않아 그린에만 올리자는 생각으로 랜딩 지점을 넓게 설정했다.

**Q. 1라운드를 잘 치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것이 처음은 아닌데,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?**

기자회견장에 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. 항상 그렇지만 이번 대회는 더 잘 마무리하고 싶다.

**Q. 드림투어에서 잘해 내년 정규투어 시드가 사실상 거의 확정됐는데, 그래도 고지원 선수처럼 정규투어에서 우승해 시드를 받는 것에 대한 욕심은?**

고지원 선수가 우승해서 '나도 할 수 있겠다'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다, 현재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.

**Q. 올 시즌 드림투어에서 4승을 하면서 김아림 선수와 타이를 이루었다. 이번 대회에서 만났는가?**

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, 김아림 선수가 칭찬을 많이 해줬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다**.**

**Q. 현재까지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인데, 소감은?**

끝나고 나서야 기록을 알았다. 미리 알았다면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노려봤을 텐데 조금 아쉽다.(웃음)

**Q. 드림투어 2승 자격으로 출전했는데, 메디힐·한국일보 챔피언십 출전을 선택한 이유는?**

꼭 출전하고 싶었던 대회이고, 코스와 잘 맞는다고 느꼈다. 현재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 때, 정규투어에서 최대한 빨리 경기하고 싶었다.

**Q. 지금 이 시기가 본인에게 어떤 시기이며, 대회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?**

올해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.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회에 출전하다보니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.

**◈ 한진선, 1라운드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 \*공동 3위(16시50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426>

**Q. 오늘 경기를 마친 소감은?**

비가 많이 온 덕분에 그린이 부드러워서 샷 공략하기가 좋았다. 특히, 몽베르컨트리클럽에서 열린 2023시즌 ‘대유위니아 · MBN 여자오픈’에서 3위를 했던 좋은 기억도 있어, 오늘따라 예감이 좋았다.

**Q. 마지막 홀 상황을 설명한다면?**

짧은 아이언이었는데 왼쪽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의도치 않게 많이 갔다. 하지만 샷 하나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도 경기가 남아 있으니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한다.

**Q. 코스 컨디션은 어땠는가?**

비가 많이 왔지만 페어웨이 상태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코스가 훼손되지 않았다.

**Q. 오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?**

마지막 홀에서 실수는 있었지만, 오히려 선두를 지키는 것보다 뒤에서 추격하는 상황을 더 선호한다. 그래서 오늘도 기회를 계속 얻었고 흐름도 좋다. 현재 샷감과 퍼트감을 유지한다면 마지막 날까지 선두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**Q. 각오는?**

내가 잘하면 좋겠지만, 같은 메디힐 소속 선수들이 잘하길 바라는 마음도 크다. 총 13명이 출전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.

**◈ 이채은2, 1라운드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 \*공동 3위(16시50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[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811**](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811)

**Q. 오늘 소감은?**

지난 주에 쉬고 와서 오랜만에 경기한다. 감이 없다고 느껴져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했고, 예상보다 경기가 잘 풀려 만족한다.

**Q. 날씨 영향은 없었는가?**

비올 때 플레이가 잘 안 되는 편이라 걱정했지만, 오늘은 중간중간 비가 그쳤다가 와서 괜찮았다.

**Q. 이 대회가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?**

데뷔 초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대회라 좋은 기억이 많다. 더군다나 올해는 스폰서 대회인 만큼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. 우승 경쟁을 몇 차례 하면서 자신감도 생긴 만큼 이 대회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.

**Q. 3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?**

당시에는 우승을 떠올리지도 못했다. 목표는 시드권을 유지할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우승 경쟁을 해본 경험도 쌓아서, 잘할 자신있다.

**Q. 남은 라운드 각오는?**

욕심내지 않고 오늘처럼 퍼트에 집중하면 좋은 성적을 낼 것 같다. 꼭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.

**◈ 김아림, 1라운드 중간합계 2언더파 70타 \*공동 39위(16시50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[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320**](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320)

**[스크립트 제공 = 대회조직위원회]**

**Q. 오늘 경기 전반적인 평가는?**

전반적으로 경기가 잘 풀리다가 막판에 흐름이 엉켜 아쉬웠다. 하지만 퍼트 라인에 착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서 긍정적이다. 이를 잘 활용해 남은 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.

**Q. 경기 흐름이 바뀐 포인트는?**

연습 라운드에서 전반과 후반 라인의 포인트를 파악했다고 생각했지만,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전후반 라인을 타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. 내일은 이를 잘 활용하겠다.

**Q. 9번 홀에서 답답한 제스처를 한 이유는?**

캐디가 오른쪽이 아니라고 했지만 내 판단대로 치다 보니 빗나갔다. 내 시각 판단이 잘못됐음을 느꼈고, 내일부터는 캐디와 호흡을 맞추겠다. 그래도 보이면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다.

**Q. 한국에서 경기하는 것이 편한가?**

심적으로는 해외와 큰 차이가 없다. 다만, 미국에서 계속 호흡을 맞췄던 팀과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.

**Q. 함께 경기한 방신실, 이동은 선수는 어땠는가?**

두 선수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다. 이동은 선수는 아이언 샷이 좋았고, 페이드를 잘 구사해 많은 것을 배웠다. 방신실 선수는 다른 스타트 라인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어 인상 깊었다.

**Q. 내일 경기 전략은?**

상황 판단과 그린 리딩을 더욱 집중하려고 한다.

**Q. 우승에 대한 욕심은?**

우승에만 포커스를 두진 않는다. 경기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, 지금 그 그래프가 잘 그려지고 있다.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,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매서울 것이다. 그 매서움이 어디까지 갈진 나도 모르겠다.(웃음)